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지 은

2021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김 지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김지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봉 ㊞

위 원 박정환 ㊞

위 원 최보영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년 8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김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우울감을 낮추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우울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6개 중학교 총 450명을 임의 표집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3월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5주간 이루어졌으며, 450명중 440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97.7%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2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됨으로 자료 유효율은 94.8%를 보였다.

측정도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자녀간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녀간 (개방형,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변인들의 사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3. 연구 모형 ····· 7
4. 용어의 정의 ····· 7
 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7
 나. 우울감 ····· 8
 다. 사회적 유대감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9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념 ····· 9
 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 ····· 10
2. 우울감 ····· 10
 가. 우울감의 개념 ····· 11
 나. 청소년 우울감 ····· 12
3. 사회적 유대감 ····· 14
 가. 사회적 유대감의 개념 ····· 14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유대감 관계 ····· 15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 ····· 15
 나.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의 관계 ····· 1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 방법 ····· 19

1. 연구대상 ····· 19
2. 측정도구 ····· 21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 21
 나. 우울감의 척도 ····· 22
 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 ····· 23
3. 자료분석 ····· 25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 26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 26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27
3.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0
 가.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0
 나.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2
 다.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5
 라.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6

Ⅴ. 논의 및 결론 ····· 38

참고문헌 ····· 43
Abstract ····· 54
부록(설문지) ····· 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
표 Ⅲ-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 22
표 Ⅲ-3 우울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 23
표 Ⅲ-4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 24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27
표 Ⅳ-2 부-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 28
표 Ⅳ-3 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 28
표 Ⅳ-4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1
표 Ⅳ-5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3
표 Ⅳ-6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5
표 Ⅳ-7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 3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모형 ····· 7
그림 Ⅳ-1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 32
그림 Ⅳ-2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 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행복수준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 청소년의 행복 정도는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에서 6.62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국의 평균 점수인 7.6점보다 1점 가까이 낮게 보고된다. 이는 OECD 회원국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행복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도가 낮은 이유들에 주목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 불안과 같은 요인들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아동 청소년의 행복도를 낮추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부적응 요인 중의 하나로 청소년기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선다(김교헌, 2004; Kandel & Davis, 1982). 2019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2017년(25.1%)보다 2.0%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서 남학생 22.2%, 여학생 34.6%로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4% 높다고 보고되었다.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전년에 비해서 우울감 경험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통계, 2020).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진아 · 이난희(2015)는 2020년에는 우울감이 질병부담 3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2030년에는 우리나라 질병부담 1위의 질환으로 우울감이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확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또는 직업의 선택, 자아실현 및 인격체의 성숙 등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최윤희, 2007)기도 하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은 성인과는 다르게 감정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므로 매사에 반항적이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가출, 무단결석, 신체증상호소, 성적 저하로 위장되어 나타나므로 우울증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우울은 방치할 경우 학습장애, 비행, 약물남용, 자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공격성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질과는 전혀 다른 듯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과 함께 뒤섞여 나타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산만한 태도를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늘 새로운 자극을 찾거나, 음주, 약물사용, 무단결석 등의 비행에 속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 무례하고 반항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등 우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행동들이 다소 기분이 침체되어있거나 우울증상과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복통, 권태, 두통, 무력증, 극심한 피로감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김혜원(2006)은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은 청소년기가 일생 중에 가장 높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의 우울은 연구결과에 따라 전체 청소년의 14%에서 62%까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 외, 2000; 조성진 외, 2002; Diane & Brage, 1995; Dubow, Lovke & Kausch, 199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발달기 중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학년은 고등학생 29.4%, 중학생 26.9%로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율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훨씬 더 높게 보이고 있다(청소년통계, 2020). 우울감은 자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며 자살의 전조로 보이는 중학생의 우울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울감의 원인은 사소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관계의 문제,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대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분의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 · 동료를 대상으로 의논했으며(49.1%), 28.0%는 부모를 대상으로, 13.8%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엔 어머니, 형제자매, 친구·동료와 상담하는 비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 선후배, 스승, 스스로 해결 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8세 청소년은 19-24세 청소년보다 부모, 스승과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9-24세 청소년은 친구·동료, 선후배와 상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이러한 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의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동·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동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로 부모가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또래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우울 증상을 더 유의미하게 설명 (Barrera & Garrison-Jones, 1992; Gore, Aseltin & Colten, 1993)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대인관계적 요소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Gotlib& Hammen,1992).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족과 사회내의 지위, 사회적 관계망, 역할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경험과 변화가 생긴다(김선희, 2009). 따라서 청소년 우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요소 중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대감은 감정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욕구에 대한 인식과 우울, 불안을 견디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Kohur, 1984)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이다(김재엽, 정윤경, 이근영, 2008;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Welbourne, Blanchard & Wadsworth, 2013).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때 중요한 보호자 또는 사회적 세계에서의 사회적인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2006)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상태를 완화시키며 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러한 우울을 막아주는 완충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가족, 동료, 친구 등이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변인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전명임, 2009)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발달에 위협이 되는 정신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제시되었으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이며 다양한 발달 과업을 획득해야하는 시기이다(장수정, 2001). 이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형성하고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우울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양상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유대감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해체 현상 진행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양육환경과 소통, 부모의 역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은미, 2006). 부모와의 소통 부재와 불안정한 양육환경은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양산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심리적 환경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이혜진, 2002)고 보고한다.

부모의 거부는 우울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 및 우울감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이근영 외, 2011)되었다. 그리고 임점숙(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게 나타나며 청소년의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우울감이 적었다(구희정, 2013). 많은 선행연구들로 보아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나영(2013)은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중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 친구관계를 삽입하였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간 우울감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아버지 및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요인의 변인이 영향을 주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영향을 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 증진 또는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기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인 사회적 유대감은 아동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출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떤 부모와 유형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는 중재 자료를 마련하고 확장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1. 부와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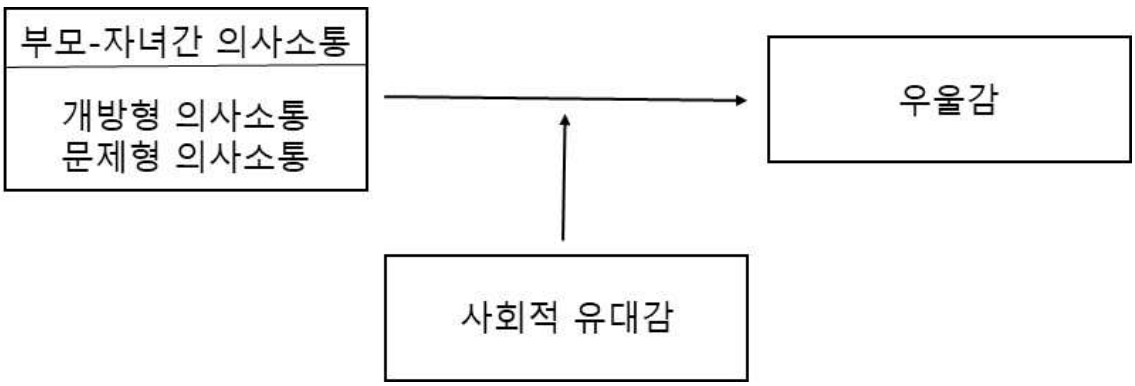
가설 1-3. 모와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모와 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Ⅰ-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리

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 의견, 느낌 등 메시지를 주고받는 순환과정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역시 서로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가 가족이라는 일치감, 존재감을 인식하게 된다(최은정, 2019).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사용되는 2가지 하위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한 양현아(2003)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우울감

우울은 정도에 따라 침울한 기분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우울한 기분은 슬픔, 공포, 죄의식, 불안, 짜증스러운 기분,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태이다(조민경, 2017). 중학생의 우울감은 일시적인 슬픈 감정을 의미하며 사춘기를 전후로 극적인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성인의 우울과는 다르게 나타나며(최윤희, 2007)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인 모습이나 파괴적 행동표현으로 발현될 경향이 있다(강경미, 1996). 본 연구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다.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활동 등에 관심을 쏟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 및 소속감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Hagerty, Lynch-Suer, Patusky, & Bousema, 1993; 이승원, 재인용). 개인은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며, 사회적 관계속의 개인의 문제나 심리적 적응을 돕는 요인이다. Kohut(1984)의 유대감은 청소년 시기까지 잘 형성되어야 자신의 가치관을 비롯한 좋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Robbins(1995)가 개발(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하고 Lee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 이희경(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쌍방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정보를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며,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행동(Galvin & Brommel, 1986)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녀와 부모는 의사소통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나눌수 있으며 관계를 형성하며 이 관계속에서 지속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인 사회의 적응기술을 익힐수 있으며 사회화의 첫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정은영, 신혜원, 2009; Orrego & Rodriguez, 2001)고 말하며 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 간의 믿음, 태도, 사실, 감정,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과 상호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채경숙, 2015).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정보교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은 갈등을 해소하고 집단 내 구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다(오민식, 2012).

가정내의 사회적 발달은 자녀의 또래관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적응 수준과 대인과계 능력이 높아지며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유능감을 보인다(신희이, 문혁준, 2009; 윤희령외, 2017). 청소년 초기에는 긍정적인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어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신희이, 문혁준, 2009).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며(채경선, 황현주, 2014)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

아동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이들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습득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자신의 대인관계, 개인 내적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로써 어떠한 사회적 관계보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김은혜, 2014) 때문이다.

학자들이 제시한 부모 -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Gordon(1975)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I-message와 You-message로 나누었다. I-message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느낀 생각과 입장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You-message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설교, 경고, 명령 등의 방법으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부모는 결국 자신의 입장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I-message일수록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서보준2017).

둘째,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부모 자녀간의 응집력을 높이며,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될 수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이에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꺼려지는 대화주제가 있다면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를 주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이경희,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부모 자녀 간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방식으로 보았을 때 부모의 어떠한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유의한 정적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우울감

가. 우울의 개념

J. 배틀(J. Battle, 1978)은 우울을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정신과 진단 중 하나이고, 정서적인 기분의 변화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라고 보고하였다. Beck,(1976)과 Joiner와 Metalsky(1993)는 우울은 인지, 사고, 지각, 판단, 태도 등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최경순, 2015).

청소년기는 비교적 강한 이드(id)와 약한 자아(ego)가 대결하는 시기로 결과적으로 본능적 불안과 감정변화가 심하며 퇴행적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갈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다양한 내적, 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불안, 우울감 및 좌절감과 같은 정서적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진다(장재호, 1989). 또한 우울감을 느끼면 자신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매일 무가치하다는 느낌이나 부적절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등의 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상을 보이기도 한다(박병금, 2006).

우울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 여러 복합적인 영향으로 유발된다(Hankin, 2005)고 알려져있다. 우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주목을 받았다. Freud(1917)는 우울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진 분노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고, 우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거나, 죽거나 혹은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애도반응이라고도 설명하였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Skinner (1963)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에서는 우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화를 얻지 못하여 생겨나는 긍정적인 강화의 결핍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민감성, 대처능력의 부족, 부정적인 주위환경 등을 들고 있다(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이는 이혼, 사별, 사고 등과 같은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사회적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회적인 강화를 덜 받게 되고 일상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므로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진다. 결국에는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되어 부정적 처벌이나 반응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은 우울의 상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감은 우리의 사회적 ·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울감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

나. 청소년 우울감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울 중 청소년의 우울은 청소년기에 유발되는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적인 정서 중의 하나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2015, 유락근). 청소년기의 우울은 반항, 결석, 가출, 비행 등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 행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죄책감, 자기비하, 창피함과 다수면 체중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신재은, 1998). 이러한 우울감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불행감이 밀려오고 자신의 인생 전체가 암울하게 느껴지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열등감, 슬픔, 또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일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깊은 절망감에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성두현, 2015). 특히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홍영수, 2004).

청소년기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억압하고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한다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내며, 말을 하지않거나, 과민하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또한 일일이 꼬투리를 잡아 논쟁하거나 상대방과 다투게 된다(고수영, 2012). 하지만 감정은 가려지고 이러한 감정들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성적문란, 과다활동, 반사회적 성향, 파괴성, 성적저하 등으로 위장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고 정의한다(민성길, 1999). 청소년 우울의 이러한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그저 사춘기를 심하게 앓거나 과민한 기분과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하며(송지선, 2016),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Hauenstein, 2003)고 보고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인삶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송후림, 2014),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곽영희, 2011). 청소년은 우울로 인한 자살시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실행률도 높은 편이다 (Kienhorst, De Wilde, Diekstra, & Wolters, 1995).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적극적인 개입은 매우 중요하며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축적해나가야 하며 청소년 우울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사회적 유대감

가. 사회적 유대감의 개념

개인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때 보호자 또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Dunkley et al., 2000; 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를 받는 경험 자체가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적응적 상태를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하여 소속감과 친밀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역시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유대감은 가족, 동료, 친구 등 친밀감과 소속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Lee & Robbins, 1998) 욕구인식과 감정조절에 관계를 보이며, 우울이나 불안을 견디는 힘의 원천이라는 결과를 보인다.(Kohur, 1984).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며,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8).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지각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경험적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관계가 있었고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부적 관계를 보이므로(Yoon, Lee, & Goh, 2008),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과 유의한 부적관계에 있으며 우울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유대감 관계

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중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Barrera, Garrison-Jones, 1992). 또한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은 부모를 통해 정서적 발달 및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권이종・김용구, 2016).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선희, 2009; 한혜숙, 2009).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부모의 간섭에 저항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심혜영, 1993). 하지만, 청소년기의 경험이 모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청소년과 부모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정연호, 류점숙, 신효식, 2004).

한혜숙 (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 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문제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우울 성향은 낮아진다는 것이다(양영미, 홍송이, 2018)

가족내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며(이정윤, 최수미, 2001), 더 높은 삶의 만족도(Levin & Currie, 2010), 행복감(김태선, 2017), 자기효능감(오윤자, 2004)등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적응 측면을 높게 나타낸다.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우울의 정도를 낮추는 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우울의 정도를 높인다(김선희, 방희정, 2009;김사라형선, 2010; 염순교, 이종화, 2014; 이영화, 지연경, 도현심, 2012; Fanti et al., 2008; Lunkenheimer et al., 2007; Yap et al., 2008). 또한, 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우울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과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설, 2017).

고연정과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불쾌감을 보일 때 자녀는 우울감을 보였다(Yap et al., 2008).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 사고는 낮아졌고, 반면에 주관적인 행복감은 높았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문제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높으며 행복감은 낮다(황연덕, 2012)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공통점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낮은 우울감과 관련 있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우울감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우울과 유의한 부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의 관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공격성, 폭력 등으로 인한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예방적 중재로서 사회 정서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때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unkley et al., 2000; Rice et al., 2006).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지지를 느끼는 것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상태를 완화시키고 막아주는 완충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동료, 가족, 친구 등 전반적인 사회적 세계에 대한 친밀감 및 소속감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 역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명임, 2009).

사회적 유대감은 폭력성,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임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윤선아, 2007). 김예성과 김광혁(2008)은 초등학교 아동의 경험유형에 따른 학교유대감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유대감이 아동들의 공격성을 낮출 수 있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Gray,Ishii,&Am-bady(2011)은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될수록 우울감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낮추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ee 등(2001)은 낮은 사회적 유대감이 심리적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관계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사교적이지 않고 주장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역기능적 대인관계 행동들을 보였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적대감, 우울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01). 또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5; Lee et al., 2001; 이수진, 2007에서 재인용).

이와 반대로 수준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보이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자원들이 낮은 자존감, 불안과 우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Kohut, 1984; Tesser, 1991). 즉,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타인과 쉽게 사교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집단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은 저하된 자존감,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음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명임(2009)의 완벽주의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두 변인을 부분매개 하였고, 사회적유대감과 우울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감은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감은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행이나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관계와의 우울감은 더욱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우울감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 장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관계에 있음을 상정하고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할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6개의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 해당 학교를 찾아가 실시하려고 했으나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실시가 어려워 협조를 구한 학교 담당자 및 담당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내용,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각 학급에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수업직전 또는 쉬는 시간을 통해 약 20분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450부의 설문지 중 4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427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27)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남	217	50.8
	여	210	49.2
연령	14세	147	34.4
	15세	252	59.0
	16세	28	6.6
학년	1학년	147	34.4
	2학년	252	59.0
	3학년	28	6.6
거주 지역	제주시	293	68.6
	서귀포시	134	31.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총 427명 중에서 중학생 성별은 남자가 217(50.8%), 여자가 210명(49.2%)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의 경우는 15세가 252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4세 147명(34.4%), 16세 28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연령과 동일하게 15세에 해당하는 2학년이 252명(59.0%), 1학년 147명(34.4%0), 3학년 28명(6.6%)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 거주 지역의 경우는 제주시 293명(68.6%)이 서귀포시 134명(31.4%)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그리고 종속변인인 우울감 및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하영(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에서 사용되는 2가지 하위요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장 표현에 있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적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한 양현아(2003)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총 20문항,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2가지 하위요인으료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부모 응답방식을 구분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등과 같은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1, 3, 6, 7, 8, 9, 13, 14, 16, 17번),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등과 같은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2, 4, 5, 10, 11, 12, 15, 18, 19, 20번)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자기보고식 형식의 Likert식 5점 척도로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2가지 하위요인은 긍정과 부정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유형으로,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표현이 자유롭고 개방적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과 반응이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전체 .90,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91,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78을 나타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전체 .90, 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89,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78를 나타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아버지/어머니
개방형 의사소통	1, 3, 6, 7, 8, 9, 13, 14, 16, 17	10	.91 / .89
문제형 의사소통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78 / .78
	전체	20	.90 / .90

나. 우울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울감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김진영 외(2000)의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도 구분되기도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진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없었다(0점)'에서 '매일있었다(3점)'까지 자기 보고 형식의 Likert 0~3점 척도로 구분되며, 4, 8, 12, 16번의 4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Ⅲ-3> 우울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우울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2

*는 역채점 문항

신승철 등(1991)의 한국에서의 CES-D 표준화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울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3과 같다.

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Lee와 Robbins(1995)가 개발(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하고 Lee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 이희경(2011)이 한국어로 번안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적 유대감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친구들과 있을 때에 형재(자매)애를 느낄 수 없다', '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문항 3, 6, 7, 9, 11, 13, 15, 17, 18, 20번의 10문항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표 Ⅲ-4>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N=427)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적 유대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90

*는 역채점 문항

전명임과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유대감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Ⅲ-4와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for Windows 22.0을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떤 조절역할을 하고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Cohen 외(200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전,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작업을 통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처리를 하였다(서영석, 2010; 백미현, 유현실, 2012). 다음으로 평균중심화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의 유의성을 파악한다. 2단계로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유의성을 파악한다. 마지막 3단계로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다. 이때 조절효과(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및 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는 표 Ⅳ-1과 같다.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을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부-자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은 3.40점, 모-자의 개방형 의사소통 평균은 3.56점으로 보통(3점)보다는 비교적 높은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부-자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평균 2.77점, 모-자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평균 2.78점으로 보통보다는 다소 낮은 평균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이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인인 우울감의 수준은 0점에서 3점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척도임을 감안했을 때, 평균이 .86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슬픔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 상태가 높아짐을 의미하지만 '전혀없었다(0점)'에서 '한 두번 있었다(1점)' 사이에 평균이하 값에 해당됨으로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우울감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 수준을 6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유대감 평균이 4.26점으로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사회 전반에 소속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긍정반응에 해당하는 '조금 그렇다(4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임으로 사회적 유대감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값(kurtoss)이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왜도 값이 모두 1을 넘지 않고 있으며, 첨도 역시 1을 넘지 않고 있어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427)

변인		M	SD	왜도	첨도	반응척도
독립변인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3.40	.84	-.22	-.33	1-5
	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3.56	.79	-.17	-.42	1-5
	부-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2.77	.67	-.04	-.06	1-5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2.78	.68	-.08	-.30	1-5
종속변인	우울감	.86	.54	.73	.40	0-3
조절변인	사회적 유대감	4.26	.76	-.39	.29	1-6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최종 42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표 Ⅳ-2, 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2> 부-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N=427)

	1	2	3	4
1.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1			
2. 부-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64**	1		
3. 우울감	-.47**	.50**	1	
4. 사회적 유대감	.40**	-.33**	-.57**	1

**p<.01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은 정적 상관(r=.40, p<.01)이 나타났으며,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과는 부적 상관(r=-.33, p<.01)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 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관계

(N=427)

	1	2	3	4
1. 모-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	1			
2. 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	-.60**	1		
3. 우울감	-.49**	.49**	1	
4. 사회적 유대감	.44**	-.33**	-.57**	1

**p<.01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자녀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은 정적 상관(r=.44, p<.01)이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과는 부적 상관(r=-.33, p<.01)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은 높아지지만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47, p<.01)이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 상관(r=.50, p<.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49, p<.01)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은 정적 상관(r=.49,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 자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중학생 자녀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57, p<.01)을, 모-자녀간도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은 부적 상관(r=-.57, p<.01)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모두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유대감의 조절효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줄이고 결과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을 경우 검증된 효과를 구체적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가.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14~1.20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4에 제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4>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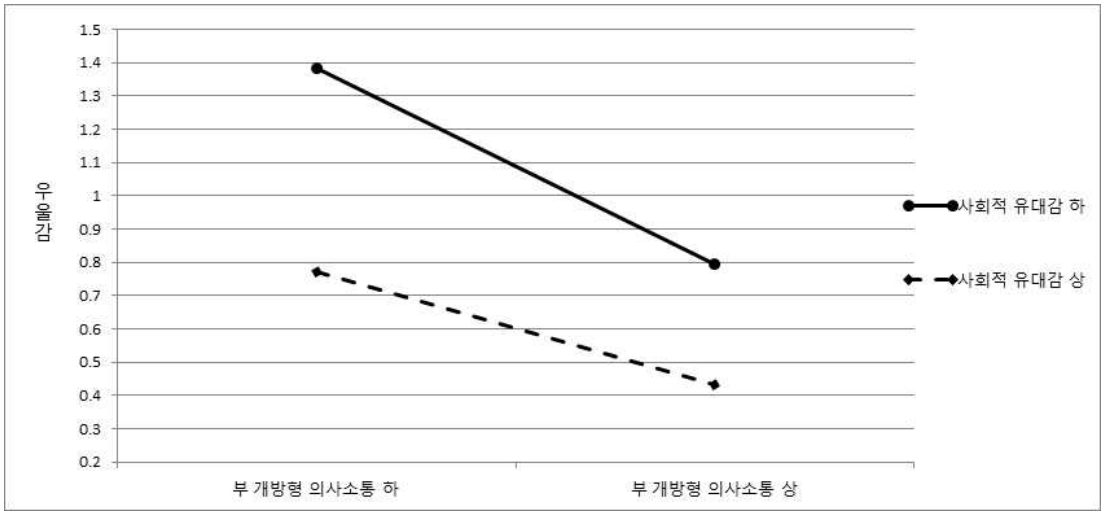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R^2	$\triangle R^2$	F
우울감	1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47	-11.09***	.22		123.02***
	2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29	-7.15***	.40	.18	142.26***
		사회적 유능감(B)	-.46	-11.20***			
	3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A)	-.30	-7.41***	.41	.01	97.68***
		사회적 유능감(B)	-.45	-11.10***			
		A * B	.09	2.34*			

*p<.05, ***p<.001

표 Ⅳ-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2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3.02, p<.001). 2단계에서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가 우울감을 40%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2.26, p<.001). 3단계에서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관계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41%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7.68, p<.001). 또한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 t=2.34, p<.05). 즉,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1% 증가하였고, 따라서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 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Ⅳ-1]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은 우울감에 대한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개방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과 높은집단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 때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 우울감을 더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낮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경우 우울감을 떨어뜨리며,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이 낮으면 우울감은 높아짐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34~1.1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부-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R^2	$\triangle R^2$	F
우울감	1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50	12.04***	.25		144.98***
	2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35	9.15***	.44	.19	166.56***
		사회적 유능감(B)	-.46	-11.86***			
	3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A)	.37	9.55***	.45	.01	115.56***
		사회적 유능감(B)	-.44	-11.41***			
		A * B	-.10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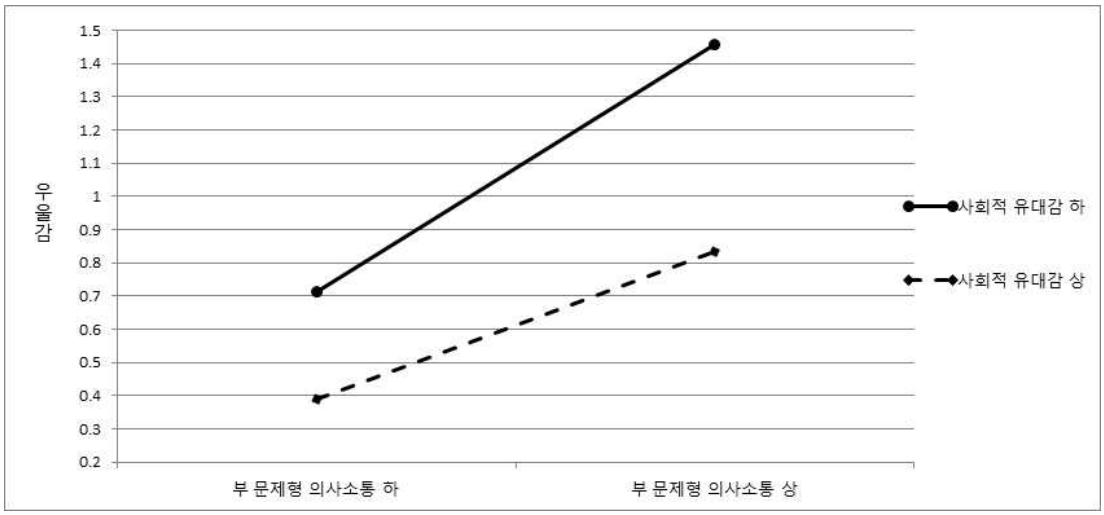
**p<.01, ***p<.001

표 Ⅳ-5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44%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6.56,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 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관계 상호자용 변인이 우울감을 45% 설명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5.56, p<.001). 또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상호작용 변인이 우울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 t=-2.84, p<.01). 즉,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 관계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 변인이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1% 증가하였고, 따라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의 평균 값을 중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으로 표준편차 ±값을 각변인의 상,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Ⅳ-2]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는 우울감에 대한 부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문제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부와 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 때 더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 우울감을 더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문제형이 높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으면 우울감을 떨어뜨릴수 있으며, 부와 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이 낮으면 우울감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16~1.25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5에 제시하였다.

<표 Ⅳ-6>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R^2	$\triangle R^2$	F
우울감	1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49	-11.50***	.24		132.30***
	2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29	-6.92***	.40	.16	139.90***
		사회적 유대감(B)	-.45	-10.62***			
	3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A)	-.30	-7.04***	.40	.00	94.16***
		사회적 유대감(B)	-.44	-10.42***			
		A * B	.05	1.42			

***p<.001

표 Ⅳ-6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투입하였고, 설명력이 24%에서 16% 증가하였다(F=139.90, p<.001). 3단계에서 추가로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β=.05).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한 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 않았다.

라.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한 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을 넘지 않는 1.038~1.15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섭, 2016). 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문제형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Ⅳ-7에 제시하였다.

<표 Ⅳ-7>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N=427)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t	R^2	$\triangle R^2$	F
우울감	1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49	11.67***	.24		136.10***
	2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34	8.76***	.43	.19	161.39***
		사회적 유대감(B)	-.46	-11.90			
	3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A)	.35	8.86***	.43	.00	108.28***
		사회적 유대감(B)	-.45	-11.55***			
		A * B	-.05	-1.27			

***p<.001

표 Ⅳ-7에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투입하였고, 설명력이 24%에서 19% 증가하였다(F=161.39, p<.001). 3단계에서 추가로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β=-.05).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모의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대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유대감이 조절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학생의 우울감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 우울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신적 건강과 우울감 감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우울감, 사회적 유대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자 및 모-자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역시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양식과 청소년 우울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백소윤, 2007)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역기능적 일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김선희, 2009) 등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에 취약하다(Lee, 1998)는 결과와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Hewitt, 2012)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간의 부적상관이 있다(전명임, 이희경, 2011; 정인철, 노안영, 2015)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을 예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는 요인이자 개선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와의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나지만, 모와 자녀간 개방형, 문제형 의사소통은 우울감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우울감관계에서 의사소통수준이 높고 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낮았다(조수진, 2007)는 연구와 부의 순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는 본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낮게 나타났다.(안나영, 2013) 사회적 유대감은 긍정적인 정서와 삶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Yoonetal, 2008)는 연구결과가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감에 의미있는 예언변인이며 긍정적 정서와 삶 만족을 높임으로써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전명임, 2009).

본 연구결과는 부-자녀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형인 집단, 부와 자녀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인 집단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집단이 우울정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인해 우울감의 강도가 높아도 사회적유대감이 높은 자녀의 우울감을 낮춰주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와 모의 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조절하는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에도 의미가 있다. 주로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대화시간이 어머니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이명복, 2005)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보다 적지만 사회적 문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해결능력과 우울감의 관계에서도 부와의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돕고, 사회적 기술 습득을 장려해 주어 자녀의 사회의 도덕 및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Lamb,1975)이라고 한 바 있다.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중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자체로서 모델링이 되어, 자녀가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자녀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와 대화시간보다 더 많으면서도 사회적 유대감과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녀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버지보다 긴 시간을 소통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관여와 간섭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이경희, 2014)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관계형성이나 소통의 기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유대감이 중학생의 우울감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의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 정서의 예방책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수 있도록 돕기위해 주변인들과 지역사회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 스스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내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집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해 나아가는 시기에 청소년은 급격한 감정의 변화, 혼란스러움, 부정적 감정, 우울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므로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이며 가정 내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기본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대화가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우울감은 예방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더라도 사회적 유대감이 높다면 우울감을 낮출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기회가 필요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기술과 친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부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일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모와의 의사소통보다 우울감을 낮춘다는 결과를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부의 의사소통과 우울감의 관계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므로, 특히 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면 자녀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연구는 향후 중학생의 우울감 영향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제주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을것이고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둘째, 중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사회적 유대감 외에도 개인내적 자원이나 특성중 변화가 가능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학생만이 아니라 높아져가는 고등학생의 고위험군 우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다양한 행동관찰, 면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측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강경미(1996). **내성강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기도피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강병철(2019). **중학생의 우울과 사이버 불링 가해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수영(2012). **부모애착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연정, 이지연(2013).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과 심리적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1**(2), 3-17.

곽영희 (2011). 청소년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8), 45-6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중· 고등학생 대상

구희정(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5.

권도연(201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조절능력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교헌(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김명옥(2014).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관계성, 개별성 향상을 위한 한상담 부모역할훈련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사라형선(2010).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 치료와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웃음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아동학회, 제31권** 제2호, 197-207

김선경(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선희, 방희정 (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세은, 김사라형선(2016).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2), 239-356.

김성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연, 전종설(2016).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불안 및 정서조절곤란과 인터넷 중독간의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1), 159-183.

김예성, 김광혁(2008).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유형에 따른 우울불안, 학교유대감, 공격성의 차이 및 피해경험을 통한 가해경험 변화. **한국아동학회**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김은혜(2014). **부모의 용서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엽, 장대연, 서정열(2018). 군(軍) 초급 부사관의 직무불안정성과 우울의 관계 :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군사회복지학,** 61-84

김재엽, 정윤경, 이근영(2008). 아내폭력 재피해 경험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관계망의 조절효과-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참여 남성의 아내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6**(8), 85-95.

김지은(2013).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선(2017). **부-자녀 및 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신체상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2006). **청소년 우울과 문제해결능력, 자시효능감, 생활사건 스트레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경섭(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신경정신과학, 서울:하나의학사.

류승민(2010).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민성길 (1999). 최근정신의학. 일조각.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금(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시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정, 김형남, 김인복, 전승아(2000). 청소년에서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의 신뢰도. **가정의학회지, 21**(2), 244~253.

백미현, 유현실(2012). 사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과 소진의 관계: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6), 3191-3205.

백소윤(2007).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및 학교생활 적응.**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서보준(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성두현(2014). **청소년 또래 괴롭힘,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송지선(2016). **미술치료학 석사학위과정 실습생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미술 치료 현장실습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송후림(2014). 소아청소년 우울증 약물학적 치료지침: 항우울제의 효과와 선택.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5**(4), 175-185.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하람(2019). **유아의 환경적 지속가능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공동체의식 간의 구조관계 분석,**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혜영(1993).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희옥 · 김영미(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신희이, 문혁준(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 및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s Sense of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아동학회지, 30**(4), 33-46.

안나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영미, 홍송이(2018).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학부모연구, 제5권** 제1호, 77-95.

양현아(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염순교, 이종화(201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40**(3), 1-11.

오민식(2012). **중학생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윤자(2004). 초등학생 아버지-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01-219.

우신애(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시소통이 청소년 또래갈등,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울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락근(2015).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 자기효능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소정(2012). **문제해결능력과 귀인성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선아(2007). 정서 행동 장애 학생을 위한 문제 해결력 중재 방안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제6권** 제1호, 41 - 70 (30 pages).

이경희(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2011).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이명복(2005). **친자간의 대화의 방법과 량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세진(2020).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원(2015). **학교체육과 여가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사회적유대감, 폭력성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원, 원도연, 박상현(2016). 청소년의 학교체육 참여, 여가스포츠 참여, 사회적 유대감, 폭력성 및 우울감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11-422.

이영화, 지연경, 도현심(201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3**(6), 149-168.

이정윤, 최수미(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이혜진(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자・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9**(3).

임점숙(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연수(2020).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명임(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 석사학위 논문.

전명임, 이희경(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67-83.

전진아 · 이난희(2015).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보건복지포럼, 1월 통권** 제 219호, 75-84.

정연호, 류점숙, 신효식(200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적응성: 전남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145-159.

정은영 & 신. J. (2009). 가족체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과 또래 상호작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39-267.

정인철, 노안영(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격려, 자기낙담,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297-297.

정장수(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수진(200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성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우울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욱, 함봉진 외(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경정신의학, 41(6), 1142~1155.

장수정(2001). 고**등학생의 다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연수(2019).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재호(198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우울대응행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윤옥(2014). **사회적 자본과 동네무질서가 초등학생 정신보건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채경숙(2015)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경순(2014). **후기청소년의 자율성 욕구, 군 조직통제 정서, 우울감, 스트레스가 병영일탈행동에 미치는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은미(2006). **한부모 가족 아동의 학교적응과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희(2007). **서울시 일부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관련 요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은정(2020).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이중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8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연구원.** 188~190.

한우서(201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유대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혜숙(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시소재 중1·2학년을 중심으로.** 경북외국어대학교 목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영수(2004). 청소년 자살 행동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과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제1권** 제1호.

황연덕(2012). 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부정적 자동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고의 매개역할. **아동학회지, 33**(1), 223-236.

Barnes, H. & Olsen,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arrera, M. & Garrison-Jones,C.(1992). Family and peer social support as specific correlates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1, 1-16

Battle, J.(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2, 745-746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e 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iane,G.B.& Brage(1995).*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9(1),45~55.

Dubow, E. F.,Lovke,K.R.,& Kausch,D.F.(1990).Demographic differences in adolescents' health concerns and perceptions of health ag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1), 44~45.

Dunkley, D. M., Blankstein, K. R. J., Williams, M., & Winkworth, G.(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Dunkley, D. M.,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hy and Research,* 24, 713-730.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In collected papers,* Vol. 4. London:

Hankin, B. L., Abela, J. R. (2005).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adolescence an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dulthood: A developmental vulnerability-stress perspective. *In Hankin B.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Galvin, K. M., & Brommel, B. J.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 Foreman and Co, 1986b.

Gotlib,S.,& Hammen,C.(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cognitive - interpersonal integration*. New York: Wiley.

Gordon, T. *PET :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1975.

Gray, H. M., Ishii, K., & Ambady, N. (2011). *Misery loves company: When sadness increases the desire for social connec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0146167211420167.

Joiner, T. E., & Metalsky, G. I.(1993),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ology : A Prospective Test of the Diathesis 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9.

Kandel,D.B.,& Davis,M.(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Kienhorst, I. C., De Wilde, E. J., Diekstra, R. F., & Wolters, W. H. (1995). Adolescents' image of their suicide attemp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5), 623-628.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Lamb, M, E. (1975). "Father's for gotten contributer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245-266.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310-318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338-345.

Levin, K. A., & Currie, C. (2010). Family structure, mother-child communicatio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cross-sectional multilevel analysis. *Health Education,* 110(3), 152-168.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illusiona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Lunkenheimer, E. S., Shields, A. M., & Cortina, K. S. (2007). Parental emotion coaching and dismissing in family interaction. *Social Development,* 16(2), 232-248.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1996).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115-133.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Rice, K. G., Leever, B. A., Christopher, J., & Porter, J.D. (2006). Perfectionism, Stress, and Social (Dis)Connection: A Short-Time Study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Honor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524-5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oxborough, H. M., Hewitt, P. L., Kaldas, J., Flett, G. L., Caelian, C. M., Sherry, S., & Sherry, D. L. (2012).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uicide in Youth: A Test of the Perfectionism Social Disconnection Model.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42(2), 217-233.

Skinner, B. F. (1963). *Contingencies of Reinforcement*, Appleton-Century Crofts, 193.

Tesser, A. (1991). Social versus clinical approaches to self psychology: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and Kohutian object relations theory. The relational self: *Theoretical convergences in psychoanalysis and social psychology,* 257-28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k.

Yap, M. B., Allen, N. B., & Ladouceur, C. D. (2008). *Maternal socialization of positive affect:The impact of invalidation on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hild development, 79(5), 1415-1431.

Yoon, E., Lee, R. M., & Goh, M.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dolescent Depression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Kim Ji E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control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in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data necessary to improv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reduce depression. It also aims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by effectively dealing with depression through social connectednes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set the research problem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Is social connectedness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450 students from six middle school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or about five weeks from March 15 to April 16, 2021, with 440 out of 4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trieved data, 97.7%, but 427 data excluding some non-response and faithless respons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showing 94.8%.

Measurement tools us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depression, social cohesion scal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rvey question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22.0, a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social connectedness. measure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In addition,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orientation of each variable. In add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how social connectedness play a regulatory role in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In addition,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op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social ties, open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dur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negative correlatio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dur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were positive correlation. And there was a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control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showed that social connectedness. has a control effect in father-child (ope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However, social ties between mother-child (open,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have shown no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social connectedness act as important variables in parent-child (open and problematic)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and that social connectedness act as regulatory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epth and multilateral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promote social ties to reduce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여러분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리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연구자: 김 지 은
mhh1238@naver.com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O또는√표시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남 ②여

2. 나 이 (세)

2. 학 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3. 사는 지역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 주의사항 》

1.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세요.

2.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부모-자녀 의사소통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의사소통)할 때 느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곳에 O또는 V를 해주세요.(부 또는 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현재 살고있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표시해주세요.)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부					
		모					
2	나는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부					
		모					
3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부					
		모					
4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때때로 조심스럽다.	부					
		모					
5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이야기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시는 편이다.	부					
		모					
6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신다.	부					
		모					
7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부					
		모					
8	나에게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린다.	부					
		모					
9	나는 부모님께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부					
		모					
10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다.	부					
		모					
11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부					
		모					
12	나는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부					
		모					
13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는 편이다.	부					
		모					
14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다.	부					
		모					
15	부모님께 의논드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부					
		모					
16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드릴 수있다.	부					
		모					
17	나의 속마음을 부모님께 터놓고 말씀드릴수 있다.	부					
		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8	부모님은 나에게 성가신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다.	부					
		모					
19	부모님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꾸중하신다.	부					
		모					
20	어떤 사실에 대해 나의 솔직한 느낌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어렵다.	부					
		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사회적 유대감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대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O또는 V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낯선 사람과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						
2	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친구들과 있을 때에 형제(자매)애를 느낄 수 없다.						
4	나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다.						
5	나는 사람들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6	나는 내 주위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						
7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8	나는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가가기 쉽다고 본다.						
9	나는 아웃사이더처럼 느낀다.						
10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는다고 느낀다.						
11	나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						
12	나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13	나는 내 또래의 사람들과 일체감이 거의 없다.						
14	나는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15	나는 사회와의 유대감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17	나는 내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본다.						
1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9	나는 내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20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과 함께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우울감

아래 항목들을 잘 읽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되는 칸에 O 또는V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없었다	한두번 있었다	많이 있었다	매일 있었다
1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진다.				
2	입맛이 없었다.				
3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도 했지만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4	나는 남들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생각한다.				
5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6	기분이 우울했다.				
7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8	나는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11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12	행복한 편이었다.				
13	평상시보다 대화를 적게 하였다.				
14	외로움을 느꼈다.				
15	다른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16	생활이 즐겁다고 느껴졌다.				
17	울었던 적이 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 설문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